광주전남 언론인회 새 회장 조동수씨

〈조동수 회장〉〈김종남 부회장〉

〈김병수 부회장〉〈나의갑 사무총장〉

광주·전남 전직 언론인들의 모임인 광주·전남 언론인회는 17일 2011년 정기총회를 열고 회원 만장일치로 임기 2년의 신임회장에 조동수 전 광주일보 주필을 선출했다.

총회는 또 신임 부회장에 김종남 전 광주일보 편집국장·김병수 전 광남일보 편집국장을, 사무총장에 나의갑 전 전남일보 편집국장을 각각 선임했다.

조회장은 "전직 언론인으로서 지역언론발전을 위해 사회적 책임을 다할 생각이다"며 "1년에 한두차례 세미나를 열어 지역언론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현역기자들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공적이 뛰어난 기자들에게 수여하는 언론상을 제정하는 것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974년 결성된 '청령회'를 모태로 출범한 광주·전남 언론인회는 현재 159명이 회원으로 활동하고있다.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스포츠로 다문화갈등 줄일 수 있어요"

광주 온 메이저리그 전설의 타자 배리라킨

"다가올 미래는 제가 살았던 세상보다 더 낫도록 만들고 싶습니다."

미국 메이저리그(MLB) 출신 대선수는 월등했던 야구실력만큼 자선에 대한 철학도 남들보다 확고했다.

'살면서 받은 모든 것들을 아낌없이 후세를 위해 남기겠다는 것'. 1990년 신시네티 레즈를 우승으로 이끈 배리 라킨(46·Barry Louis Larkin)이 17일 오전 광주시 북구 무등경기장을 방문했다.

라킨은 1990년 신시내티 레즈의 월드시리즈 우승 멤버로, 통산 타율 0.295(2340안타·198홈런·960타점·379도루)를 기록한 메이저리그 최정상급 유격수다. 올해 명예의 전당에 입성할 가능성이 크다.

미국 국무부 스포츠 엔보이(Sports Envoy) 프로그램을 통해 외교특사 자격으로 광주에 온 그는 이날 광주에서 8시간의 짧은 일정을 바쁘게 보냈다.

오전에는 봉주초등학교 등 광주시내 초등학생 25명과 중학생 5명을 초청, 1시간 30분동안 간단한 야구클리닉을 가졌다. 초청된 학생들은 새터민과 다문화 가정 출신들. 대부분 야구를 처음 접하는 아이들이었지만 라킨은 함께 온 조 로건(41·몬트리올 엑스포스 투수 출신)과 함께 스트레칭부터 공 던지기, 티배팅까지 진지한 모습으로 아이들과 어울렸다.

자신도 히스패닉계와 인디언계 등 복합적인 다문화가정 출신이라고 밝힌 라킨은 "최근 한국도 다문화 가정이 증가하면서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다양한 문화를 가진 집단이 커갈수록 한 나라의 문화도 건강할 수 있다"며 "스포츠는 문화적 차이를 뛰어넘고 이를 극복하는 한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라킨은 현역시절에도 소외계층 아이들에게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1993년에는 사회봉사활동에 적극적인 선수에게 수여되는 '로베르토 클레멘테상'을 수상했고, 2008년에는 자신의 이름을 딴 포도주를 출시, 수익금 전액을 스포츠 재단에 기부했다. 이날 오후에는 동강대 야구부와 함께 수준높은 야구교실도 가졌다.

한편, 한국야구에 대해 잘 아느냐는 질문에 라킨은 KIA타이거즈의 서재응과 최희섭은 물론 봉중근, 김병현, 추신수 등을 거론하며 "한국 야구는 이미 세계적"이라고 평했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미국 메이저리거 배리 라킨(왼쪽)과 조 로건이 17일 오전 광주 무등경기장 KIA 타이거즈 연습장에서 어린이들에게 야구의 기본기를 가르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최규철 광주예총 회장 21일 취임

최규철 광주예총 회장은 오는 21일 오후 3시30분 김대중컨벤션 센터 4층 컨벤션홀에서 제8대 광주예총 회장 취임식을 갖는다. 최회장은 4년간 광주예총을 이끌게 된다.

'말아톤' 정윤철 감독 광주서 특강

영화 '말아톤'의 정윤철 감독이 오는 22일 오후 7시 광주시 청자미디어센터에서 '스마트폰 영화제작의 의미'란 주제로 미디어특강을 실시한다.

정 감독은 이 자리에서 지난해 10월 세계 최초로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단편영화 '미니와 바이크맨'을 선보이며 미디어의 혁신적인 기능들이 가져다주는 삶의 변화들을 이야기할 예정이다.

하정우 내달 종로서 개인전시회

영화 '황해' '추격자' 등에서 빼어난 연기력을 보여준 배우 하정우가 다음 달 9~15일 종로구 관훈동 인사아트센터에서 개인 전시회를 개최한다고 소속사 N.O.A 엔터테인먼트가 17일 밝혔다.

이번 전시회는 하정우의 3번째 개인전으로, '하정우 기획 초대 개인전'이라는 제목을 달았다.

하정우는 서커스의 어릿광대를 테마로 한 피에로 시리즈를 비롯해 나무판 위에 오일크레용으로 인물을 단순화해 독특한 표현 양식으로 재구성한 여러 작품을 공개한다.

"공부하는 시민단체 만들겠다"

광주시단협 상임대표 임낙평씨

"시민들과 함께 우리 사회의 변화의 혁신을 만드는 데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 15일 광주시민단체협의회의 새로운 상임대표로 선출된 임낙평(53) 광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은 "더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시민의 힘으로 변화와 혁신을 이루겠다"며 소감을 밝혔다.

그는 또 "대선과 총선 등 시민들의 힘으로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중요한 시점이 1년 앞으로 다가왔다"며 "시민들의 의견을 모아야할 중요한 시점에서 중책을 맡게 돼 어깨가 무겁다"고 말했다.

임 대표는 시민 단체의 역할에 대해 비판, 감시 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정책 대안 제시까지 연결시켜야 한다면서, 정부와의 관계도 "상호소통을 전제로 '민관협치(governance)' 체제를 갖춰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그는 "지금까지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광주정신이 왜곡되는 사회현상을 많이 봐왔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 시민들이 나서서 개선해야 하고, 이를 위해 시민들과 토론, 시민 의식을 고양하는 데 올해 중점을 두겠다"고 덧붙였다.

또 시민단체가 난립하고 있다는 의견에 대해 "인구 20만명의 일본 센다이시에는 환경단체만 해도 100여개가 있는데, 그만큼 시민들이 참여하는 공간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역할의 문제이지 숫자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임 대표는 시민단체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단체 임원진과 활동가들은 헌신적인 자세로 임하면서 더 공부하고, 경쟁하고, 역량을 개발해야 한다"며, "선진사회로 가기 위해서는 시민들도 자신의 취향에 맞는 시민단체 한두군데에 가입해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풍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양수현기자 yang@kwangju.co.kr

"젊은세대에 광주정신 심어줄 것"

5·18재단 이사장 김준태씨

"이 땅의 빛과 소금 역할을 해온 오월 광주정신을 잘 지켜나가도록 힘을 보태겠습니다"

17일 취임식을 갖고 공식업무를 시작한 제10대 5·18기념재단 김준태(62) 이사장은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데 일조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그는 "1980년 '오월 광주'가 대한민국과 세계에 민주주의라는 나무를 심었다면, 이제는 심는 것 못지않게 가꾸는 과정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이사장은 이어 "5·18이 서른한 살을 맞이했지만, 아직도 대한민국에는 민주주의 위기, 상대적 빈곤의 심화, 남북관계 경색 등 당면한 과제가 많다"며 "새롭게 오월 정신을 발전시키고 계승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그는 옛 전남도청 별관 보존논란, 5·18단체 통합, 5·18 왜곡·폄훼 등의 현안에 대해서도 "'오월 광주'가 이룩했던 대동단결 '광주정신'을 지켜나가는 것을 기본 뼈대로 모든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옛 도청 별관에 대해서는 "도청 자체는 광주정신이라는 소프트웨어를 담는 하드웨어"라며 "별관을 사용할 수 없게 만든 문광부의 안에 찬성할 수 없다"고 별관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민들이 가장 우려하고 있는 5월 3개 단체 갈등에 대해서는 "민주적 절차를 밟는 게 원칙"이라며 "공법단체 문제는 더 지켜봐야 하겠지만, 5월이 하나라는 입장은 변함 없다"고 강조했다.

올해 재단의 중점 사업에 대해 "5월을 체험하지 않은 세대들에게도 광주정신을 심어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영어·중국어·일본어로도 홈페이지를 만드는 등 오월 정신의 국제화에도 힘쓰겠다"고 밝혔다. 또 "재단은 오월 단체만을 위한 단체가 아니다"라며 "시민들도 광주정신을 잘 지켜갈 수 있도록 애정을 갖고 지켜봐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양수현기자 yang@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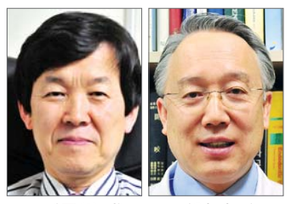
조선대 잘가르치는 교수에 '백악교육상'

외국어대 고용희·치의전 이상호 교수

조선대학교(총장 전호종)가 올해 최초로 '잘 가르치는 교수'를 선정했다.

일반적으로 대학은 연구실적이나 수상 실적을 기준으로 시상한다. 교수 사회에서 '잘 가르치는 교수'를 선발한다는 것 자체가 갈등의 요인이 되기도 해서다. 하지만 대학의 3대 기능인 교육과 연구, 봉사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교육'이라는 전호종 총장의 의지에 따라 조선대는 학교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의 하나로 학생교육에 헌신적인 교수를 포상하는 '백악교육상'을 신설했다. 상금도 기존의 '백악학술상'의 배인 1000만원으로 올렸다.

제1회 수상자로는 고용희(외국어대학 스페인어과)·이상호(치의학전문대학원 치의학과)교수가 각각 선정됐다.


〈고용희〉 〈이상호〉

고용희 교수는 학생들의 스페인어 말하기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교수의 문법설명이나 독해지문 번역을 경청하면서 필기하는 문법·번역식 수업에서 벗어나 학생들의 듣기와 말하기가 강조되는 의사소통 중심의 수업으로 전환, 실용적인 스페인어 강의를 한 것이 돋보였다.

이상호 교수는 졸업생 95% 이상이 전공의 과정을 밟는 의과대학과 달리 80%에 달하는 졸업생이 졸업 후 바로 환자 진료를 하는 치과대학의 특성상 학부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일차 진료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기존의 주입식 교육을 탈피해 문제해결 능력과 응용력을 함양하는 자기주도적 학습을 도입했다.

전호종 총장은 "대학의 본분은 학생들을 잘 교육시켜 창의적 인재로 육성하는 데 있다는 믿음에서 백악교육상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시상은 18일 현대호텔에서 열리는 2010학년도 동계 교무위원 및 주요 부서장 워크숍 석상에서 한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기자협-밝은 안과 21 '눈 수술 공동 캠페인'

교통안전공단 광주전남지사(지사장 민점기)와 근로복지공단 광주지역본부(본부장 홍일표)는 17일 오후 광주·전남기자협회(회장 박원우), 밝은 안과 21 병원(대표원장 윤길중)과 함께 지역사회 봉사를 위한 '눈 수술 공동 캠페인' 협약식을 가졌다. /최권일기자 cki@

생활 게시판

여러분의 생활정보를 실어 드립니다. opinion@kwangju.co.kr이나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생활게시판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062) 2200-628 FAX (062) 222-4938, 222-4918

화촉

▲이상태(광주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홍영옥씨 삼남 민(고려중 교사) 군 윤진구(사업)·고영심씨 장녀 유현(전남대병원 원무과)양=19일(토) 낮 12시 30분 광주 조선 컨벤션웨딩 1층.

▲조옥자씨 차남 최정훈군 주재호·양영심씨 막내 선옥양=19일(토) 낮 12시 30분 호텔무등파크 4층(다이아몬드홀)

▲김희환(전 농성1동장)·윤한금씨 장남 정욱군 주영식·이봉복씨 장녀 민경양=20일(일) 낮 12시 20분 갤러리아웨딩컨벤션 1층(다이아몬드홀)

▲이민전(민전산부인과 원장)·오명숙씨 장남 승헌군 김영일(대영종합조경대표)·김근숙씨 장녀 진영양 신부측 피로연=18일(금) 오후 5시 호텔무등파크 4층(컨벤션홀)

▲정연진·김영희씨 장남 후석군 김성산(금호고속 사장)·백형심씨 차녀 수아양=25일(금) 오후 7시 서울 서초구 반포동 JW메리어트호텔 5층 그랜드볼룸.

동창·동문회

▲북성중 28회 동창회(회장 손철정) 월례회=18일(금) 오후 7시 쌍촌동 등촌. 062-373-1566.

▲재광 무안초교 50회 동창회(회장 김영갑) 월례회=18일(금) 오후 7시 동림동 맑은 한우. 062-513-9393.

▲재광진도고성중 동문회(회장 진삼전)=21일(월) 오후 7시 충장로 5가 입구 서미정 062-223-0782.

▲서중·일고 64회 동창회 2워러 정기 총회=25일(금) 오후 7시 수완병원 옆 오늘잡은소. 062-952-0611. 011-9434-7119(총무)

향우회

▲재광 도암향우회 만남의 날=18일(금) 오후 6시 30분 라마다 프라자호텔. 010-3628-7468.

▲재광도초 향우회 회장단 이취임식 만남의 날=25일(금) 오후 6시 금수장 호텔 아리랑 하우스 010-7930-1600(고태현)

종친회

▲동래정씨 광주전남종친회(회장 정한영) 신년하례 및 이사회의=22일(화) 오전 11시 무등고시학원. 011-9615-8567.

알림

▲여성발전센터 무료 상담=가정폭력, 성폭력 등 상담. 국번없이 1366. 휴대전화 사용시 062-1366.

▲66만 전·의경 출신 모임=전·의경회 결성. 019-277-0007.

모집

▲이화숲유치원=친환경고급자재 시공(편백나무 교실, 강당, 요리실습실, 사계절 수영장) 5~7세 유아 수시모집. 진월동 리채 3차 아파트 옆. 062-367-0851~3.

▲한문지도자 자격 연수생=기초반 주중·주말반 각 25명, 연수 기간 3월 10일~8월 20일. 광주여대·교육대 평생교육원. 011-614-4160.

▲동강대학 평생교육원 지압(수지술)=3월 8일(화)까지 모집. 062-520-2516, 010-2606-6788.

▲광주대 풍수지리학 무료 강좌=26일(토) 오후 2시~5시 광주대 호심기념 도서관 5층. 양택, 음택·수맥, 나경·임향론, 비결록명당, 장법요강 등 이론과 현상 제시. 011-609-8117, 062-670-2161.

▲광주노인지도자대학 25기생=심신이 건강하고 수업에 지장이 없는 65세 이상 남여. 28일(월)까지 모집. 062-652-7374.

부음

▲이순옥씨 별세 김왕정(두산캐피탈 상임고문)·왕복(조선이공대학 총장·전 교육과학기술부 교원소청심사위원장)·왕열(승보종합건설 대표이사)·왕용(서울보증보험인천 부지부장)·왕건(승보종합건설 과장)씨 모친상=발인 19일(토) 가톨릭대 서울강남성모병원 장례식장 23호실. 02-2258-5940.

▲박정심씨 별세 김태환(전 북구의원)·성자씨 모친상=발인 19일(토) 무등장례식장 101호. 062-515-4488.

▲이명자씨 별세 주왕규·임옥·이자·영자·남희씨 모친상=발인 18일(금) 조선대병원 장례식장 3분향소. 062-231-8903.

▲나순자씨 별세 김재철·제욱·원철씨 모친상=발인 18일(금) 무등장례식장 201호. 062-515-4488.

▲양동하씨 별세 창열·해열·우열·충열·숙희·정숙·미숙씨 부친상=발인 18일(금) 조선대병원 장례식장 2분향소. 062-231-8902.

謹 故人의 冥福을 빕니다 弔

故人 박명순 님(여/50세)
子:박진수·희수 未:박하선 弟:박철종·환종 妹:박명자
• 발인 : 2월 19일 08시00분 • 장지 : 영락공원
• 연락처 : 250-4412

故人 강일원 님(남/75세)
子:강인석·천석·한주 女/壻:강미숙/윤영수
• 발인 : 2월 18일 00시00분 • 장지 : 담양무정면선영
• 연락처 : 250-4409

故人 최금순 님(여/89세)
子:정동수·대봉·길수·오수·만수 女/壻:정영례/이현경, 정기모/강성룡
• 발인 : 2월 19일 09시00분 • 장지 : 담양봉산면 선영 • 연락처 : 250-4407

그린장례식장 24시 간대기 (062)250-4455

謹 삼가 故人의 冥福을 빕니다 弔

故 엄재남 님(여/85세)
子/子婦 : 박세일/이향님, 영남/
女 : 박춘엽, 부엽
• 호실402호 • 발인:2월 18일 • 장지:영락공원

故 김명수 님(남/58세)
子: 김혁종, 혁민
未亡人 : 송 민 희
• 호실102호 • 발인:2월 17일 • 장지:영락공원

故 김양엽 님(여/92세)
子 : 장혁수
女/壻 : 김옥순/, 순례/송민섭
孫 : 김경심, 근호, 지은
• 호실101호 • 발인:2월 18일 • 장지:영락공원

마음까지 편안한 금호장례식장 http://www.mykumho.com 문의 (062)227-4000